

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 도 자 료</h1>	2016. 10. 5(수)	
		작 성 문 의	사회조정실 안전관리과 과장 신강민 / 사무관 박완섭 (Tel. 044-200-2346/2348)
<p>* 엠바고 : 즉시 사용</p>			

태풍 '차바' 피해 방지 · 복구에 최선 다할 것

- 황교안 국무총리는 10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영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처장관으로부터 제18호 태풍 '차바' 피해상황을 보고 받았다.
-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이번 태풍 '차바'가 가져 온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,
 - 안전처, 행자부,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무엇보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
 - 태풍이 막바지로 아직도 일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호우가 내리고 있으므로 노약자,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.
 -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.
- 아울러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비상근무자들은 힘들겠지만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, 태풍 피해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. /끝/